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청래 “KTX 광주 송정-목포 78km 구간, 예산 투입해 개선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이제 국가가 호남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을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을 생각하면 항상 애절하고 짠하고 몽글몽글이 있다”며 “호남이 없으면 오늘 민주당도 그리고 저도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호남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스승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이정표”라며 “많은 사람들은 호남이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심장, 대한민국 발전 견인차였다고들 하는데 국가는 호남 경제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질문을 거듭 저에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됐다”며 “이제 국가가 호남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을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자

민주,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호남 생각하면 항상 애절”
정청래 “국가가 호남에게 뭘 해주겠다는 말 공개적으로 해야”
김병기 “전남,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완성시킬 것”

신감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호남과 영남 KTX 운행 속도를 비교하며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광주 송정부터 목포까지의 78km 개선 사업”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KTX 속도가 경부선이 다르고, 호남선이 다르다는 게 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경부선 고속철도 KTX가 평균 시속 234km에서 최고 시속 300km 인데 광주에서 목포까지 구간 평균 시속이 188km 최고 시속 230km 속도밖에 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KTX를 처음에 건설할 때 실제로 직선과 작업을 안 했다는 것이다. 호남 구

간은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정역부터 목포까지 78km 구간은 하루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할 문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 속에서 광주와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AI(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전남이 민주주의의 성지가 된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에서도 성지가 되도록 민주당이 당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 32%를 차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 지역”이라며 “전남을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과대학이 없다”며 “국립 건강관리와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지면 안내

- ▶ **李대통령 “검찰, 되도록 않는 것 기소해 국민 고통” 검찰청 폐지 3면**
- ▶ **국정자원 화재 첫 평일, 민원 대란 없었지만... 불편 여전 9면**

광주시, 10월 9일 무등산 정상부 개방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염원·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시민 100여명 바람개비 퍼포먼스... 시민 안전·편의 대책 마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공군 제1미사일방어대의 협조를 받아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월9일 오후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부를 개방한다.

이번 개방행사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내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또 지난해 인왕봉 상시 개방 이후 무등산 정상 경관 개방을 요청한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염원을 한마음으로 모은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 등을 관광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구간이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군부대 출입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 군사보안을 이유로 외국인인 출입이 제한되며, 인왕봉은 누구나 자유

롭게 탐방할 수 있다.

광주시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취약 지역에 질서계도 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119 구급차량과 헬기를 대기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차량 혼잡구간인 충장사~원효사 주차장, 운림중학교~증심사 입구에서 불법 주정차를 통제한다.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군부대가 주도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1년 첫 개방행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26회 개방해 48만 7000여명이 다녀갔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정상 개방은 무등산이 세계적 명산임을 알리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정상 개방일에 탐방객들의 안전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성묘객 편의 518번 증차, 지원15·용전86 영락공원 운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10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상황실(062-613-4501)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국·시립묘역을 찾는 시민과 성묘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광주송정역·광주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 등 주요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지도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귀성·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성묘객 편의를 위해 주요 노선 시내버스를 조정·증차 운행한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추석 당일(6일) 30회

증차 운행하고, 월남동·태령을 운행하는 지원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해 운행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해 운행한다.

다만, 시내버스·지하철 막차 연장 운행은 이용 수요가 적어 시행하지 않는다. /전광훈 기자